



숨진 李賢友君

【대전=池明勳】한국과학기술원(KAIST)에 최연소 입학해 화제를 낳았던 과학기술대생이 학업부진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.

28일 오전 6시경 대전 유성구 어음동 한빛아파트 109동 109호에서 KAIST 학사과정 李賢友君(19·화성)과 3년후학·경기하남시)이 피를 흘린채 숨

져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 尹모씨(59)가 발견, 경찰에 신고했다. 尹씨에 따르면 이날 아침 尹씨는 주머니로부터

기름칠을 들고 가보니 李君이 머리와 코등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으며 옥상에 먹다 남은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는 것.

정고시로 중학교과정을 마친 뒤 대전과학고를 거쳐 같은 또래 친구들이 고교에 입학하던 지난 92년 16세로 과기대에 최연소 합

류했다. 李君은 그러나 2학년때 스트레스증상으로 한 학기 휴학했다가 복학했으나 성적이 크게 떨어져 고민해 오다 지난 3월 재휴학을

다. 李君은 이날 친구인 禹모(20·산업경영학과 4년)의 호출기 음성사서함에 '숨을 마셨다. 인연있으면 또 만나자. 세상에는

보통사람이 있다가 하면 나같은 사람도 있다. 잘 지내라'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.

3년후학 19세 李賢友君

“학업 따라가기 힘들다” 고민

16세에 科技大진학 수재 자살

李君은 이날 새벽 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올림피아드선 한영출구전을 본 뒤 『바람을 쐬고 오겠다』며 혼자 밖으로 나갔다고 주위 친구들은 전했다.

서울S여중 교사로 재직 중인 李君의 아버지와 친구들 『경술에서 『현우가 평소 「수업진도를 따라가기 힘들다」며 미리가 따라주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자주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.』

李君은 이날 친구인 禹모(20·산업경영학과 4년)의 호출기 음성사서함에 '숨을 마셨다. 인연있으면 또 만나자. 세상에는 보통사람이 있다가 하면 나같은 사람도 있다. 잘 지내라'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.